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3. 22.(일) 11:00 / 3. 23.(월) 조간 배포 2025. 3. 20.(금) 16:00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업체 119개소 적발

- 거짓표시 76개소(형사입건), 미표시 43개소(과태료 1,385만원 부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른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119개소를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450명)이 소비자 이용이 많은 온라인 플랫폼,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결과, 원산지 위반 건수는 배달앱이 103개소로 전체의 86.6%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플랫폼은 15개소로 전체 12.6%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23건), 두부류(12건), 닭고기(12건), 쌀(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위반 사례로는 ①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하면서 배달앱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② 떡류 제조업체가 미얀마산 동부, 중국산 참깨를 원료로 사용한 떡을 온라인 플랫폼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였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실제 물건을 보고 구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책임자	과 장	박홍진 (054-429-4151)
		담당자	사무관	김영교 (054-429-4156)

붙임1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적발 사례

❑ 배달앱

경상북도 소재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하면서 ○○배달앱에 배추김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150kg / 위반금액 178만원) → 형사입건

경기도 소재 ○○음식점은 독일산 돼지고기를 조리·판매하면서 ○○배달앱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100kg, 위반금액 130만원) → 형사입건

제주도 소재 ○○음식점은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육볶음을 조리·판매하면서 ○○배달앱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
(위반물량 10kg, 위반금액 28만원) → 과태료 부과

❑ 통신판매 중개사이트

전라남도 소재 ○○가공업체는 미얀마산 동부, 중국산 참깨 등으로 제조한 떡류 제품을 ○○중개사이트에 원산지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2,000kg / 위반금액 2,000만원) → 형사입건

강원도 소재 ○○가공업체는 침출차에 제조에 사용한 중국산 당귀, 황기의 원산지를 ○○중개사이트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1,500kg / 위반금액 2,577만원) → 형사입건

붙임2 **관련 사진**



통신판매 모니터링 사진



현장 단속 사진